

월하종정 동안거 해제범어

上壇柱下云
靈鳥不萌 枝上夢
覺花無影 樹頭春
柱一打壇下

-3월 13일 발표



간상에 올라 주상자를 세 번 치
신 후 이르시되
현명한 새는 막리지 않는 나무
위에서 굽을 주고
지극히 아름다울 꽃은 그림자
없는 나무 위에서 봄을 맞아 핀다.
주상자를 한 번 치시고 하단하
시다.

“심청전무대 백령도 앞바다”

웅진군, 관련학자 의뢰 고증·현장조사 밝혀

효녀 심청이 연꽃을 타고 환생해
장남 아버지의 눈을 뜨게했다는 심청
전의 무대가 백령도 앞바다였다는 사
실이 밝혀졌다.

인천광역시 웅진군은 한국교원대
최은식교수등 12명의 연구팀에 의뢰
해 이같은 사실을 고증했다고 밝혔
다. 연구팀은 작년 8월부터 4차례에
걸친 현장조사와 백령도 주민 63명에
대한 설화 채록(심곡유사)등 백령도
관련 사료, 필사본(심청전)등 관련서
적 90여종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
심청전의 무대는 백령도와 황해도 해
안지역인 황주 장면을 잇는 지역이라
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.

특히 연구팀은 이번 조사에서 현재
까지 구전되고 있는 이 지역의 민간
설화인 ‘심청설화’와 그에 등장하는

지명이 현재의 지명과 일치 된다는
점에 주목했다.

즉 심청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 황
주 도화동이라는 설화와 관소리 사실
본은 실제 지명과 일치하고 심청이

지명이며 인당수에서 해류가 이 지역
으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 냈
다. 따라서 황해도 해안의 황주에서
공양미 3백석에 몸이 팔린 심청이 인
당수에서 제물로 바쳐졌다가 용왕의
힘으로 연꽃속에 환생해 해류를 타고
백령도의 연화리를 거쳐 연봉에 닿았



◇인당수에 몸을 던진 심청이 연꽃을 타고 환생해 해류를 따라와 닿았
는 백령도 연봉.

‘도하동’ 등 설화지명 실제와 일치 ‘인당수’ 장산곶·백령도 중간지점

다. 황해도 안전을 위해 바다신에게
사람을 바치는 습속이 백령도에 늦게
까지 남아 있었던 것도 연구팀은 주
요한 단서로 보았다.

“심청전도 여타의 국문 소설들과
마찬가지로 매우 많은 이본(異本)이
있지만 전체적인 이야기 전개의 줄기
는 유사한 점이 많고 특히 백령도 원
주민과 황해도에서 월남한 주민들의

설화들은 이 지역 지명, 습속과 매우
깊은 관련을 갖고 있었다”는 최은식
교수는 “이들 심청설화는 소설 심청
전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과정에
서 첨사보완되어 전해지고 있는 것
같다”고 말했다. 웅진군은 백령도 진
촌리에 심청각을 세울 계획이다.

임연태 기자

12·12 5·18 재판 방청기

사람사는 세상에 어디 이
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
를 생각하니 정말로 권력이
란 무상함을 알려주는 듯 가
속이 매어지는 아픔을 느꼈
다. 그들은 얼마나 당당히 맞
섰던가. 그런데 그들은
아무런 저항도 없다.

법은 민인을 위하여 존재
한다고 한다. 사람을 위하지
않는 자들은 사람으로 돌아
가지 않는다. 그들이 지은 업
보에 의하여 그들은 법의 심
판을 받을 것이다. 법은 민인
에게 경중하기 때문이다.

그들에게 정법의 힘을



진 판
(불교인권위 공동대표)

3월 11일, 그날은 나에
게도 그들의 심판을 올바
르게 기록할 수 있도록 부
여된 기회였다. 실로 ‘성
공한 쿠데타’라고 하여 그
들을 보호하던 현정부가
재판을 통해 진실의 빛
내겠다는 큰 생각을 출범
초기에 냈더라면 역사를
바르게 정할 수 있었을
터인데 아쉬움이 있다.

법정에는 많은 방청객
들이 있었는데 그들은
돈을 받고 들어온 그들
의 가족들이 대부분이었
다. 그리고 재판을 받고
있는 자들과 검찰
과의 논쟁을 묵인하는
재판관은 어찌된 공정한
판결을 내릴 수 없을 것
이라는 느낌이 들었다.

외국인노동자 1백여명 문화답사

불국사등 경주일대서
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
외국인노동자마을(운영위원장
김동훈)이 외국인 노동자들에
게 실질적인 한국을 느낄 수
있도록 하기 위해 오는 23~24
일 1백여명의 외국인노동자와
함께 불국사, 감은사터 등 경주

일대 문화유적지를 답사한다.
이번 문화답사는 외국인노동
자들이 열악한 작업환경과 많
은 근로시간으로 한국을 제대
로 이해할 여유를 갖지 못할뿐
만 아니라 한국불교를 배울 수
있는 기회는 전무한 실정이라
는 경부련의 자체 분석에 따라
 마련됐다.

법륜사 불교회관 건립 ‘청사진’

금강산 유점사 재현 “도심 신행도량으로”

태고종 법륜사(주지 해일)가
도심신행도량으로 변신한다.
금강산 유점사 포교당으로
창건한 법륜사는 지난 9일 장
건 68주년기념법회를 개최하
고, 경내에 지하2층 지상3층의
법륜불교회관을 건립키로 했
다.

이날 법회에서 조실 덕암스
님은 법륜불교회관 건립기금으
로 7억원을 회사했으며 법륜사
는 4월에 건축불사운영위원회
를 발족하여 불사를 추진키로
했다. 빠르면 오는 초파일을
기해 착공식을 갖을 예정인 법
륜불교회관은 대지 1천 3백35
평에 건립 6백98평 연면적 3천
4백13평 규모이며 소실된 금강
산 유점사 본당당처럼 53불을

어판대장경을 세계 각국의 세
계대장경전시관을 개설하여
신행의 길잡이로 널리 홍보하
고 세미나실과 다목적강의실
등 법회 및 모임공간을 마련
대중포교에 힘쓴다는 방침이
다.

또 일본(대정신수장경), 중
국, 스리랑카, 남태평양, 영
미와 함께 법륜사는 도심의

‘태고종 백진결사회’ 결성

젊은스님들 화합·대사회포교등 앞장

태고종의 20~40대 스님들로
구성된 ‘백진결사회(발기인대
표 일로·현왕사 주지)’가 오
는 22일 오전11시 신촌 불원사
태고플라자에서 결성식을 갖고
공식 출범한다.

이번에 결성될 백진결사회는
태고종 전국 각지의 20~40대
젊은스님들로 구성되며 회원의
화합과 정기적으로 한달에 한
번의 철야정진과 토론을 통한
수행, 대사회포교, 종단발전정

법륜유치원 설립

도심포교도량으로 거듭나기로 했다.

진각대 졸업·입학식
진각종 진각대(학장 도훈)
제6회 졸업식과 제8회 입학식
이 지난 12일 흥인원 대강당에
서 개최됐다.

이날 졸업식에는 각해총인
락혜룡리원장등 종단내외인사
와 진각대 졸업 및 입학생 30여
명이 참석했다.

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
지 계속된 불교TV 제3차 불
자주식공모가 집계결과 당초
목표액인 60억을 크게 밑도는
15억3천4백여만원으로 나타나
만성적자에 시달려온 불교TV
의 운영에 여전한 어려움이

불과 15억여원 “목표 25%”

불교TV 3차 주식공모 결과

법종단 참여 저조... 대부분 소액주주
예상되고 있다.
이번 제3차 주식공모가 이
렇게 저조한 청약실적을 보인
주요 요인으로 총3천2백2명의
청약자중 3분의 2가 넘는 2천
5백56명의 청약자가 10만원에
서 50만원의 소액주주가 대
부분이었다는데 한 요인이 있
(은)



◇현장실 스타를 찾아라! 첫 녹화가 지난 11일 관음사와 불평사 신도와 기수 평승염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.

영화 ‘유리’ 수도승 왜곡표현 논란

개봉을 앞두고 있는 독립영
화 ‘유리’(감독 양운호)가 공
연윤리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
부교미미지 손상여부 문제
로 진통을 겪고 있다.
지난 12일 열린 심의에 참
석한 조계종 총무원 사회국장
원소스님, 문화국장 덕신스
님, 호법국장 토진스님 등은
“불교의 소재를 확대하고 영
역을 넓힌 실험정신을 인정하
지만, 주인공인 수도승 유리
의 적나라한 정사묘사나 살인
장면 등은 이해의 수준을 벗
어났다”고 말해 이 영화에 대
해 유감의 입장을 밝혔다.
박사통원자의 소설(죽음의
한 연구)를 각색한 유리는 수
도승 유리가 생명의 본질을
탐구하기 위해 인간이 가진
광기의 극한까지를 육체로 체
험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.

현대불교

생활광고

본관은 독자 여러분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입니다. 최소의 비용,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관에서 찾으십시오.

- 생활용품
- 불교관련용품
- 지체용품
- 각종행사
- 개인인쇄
- 정보교한, 소식
- 안내
- 선물소개봉

문의 (02)737-8881(광고국) 팩스(02)737-0697

척추교정·지압 개인지도 (CHIROPRACTIC)

- 교육내용: 목·허리디스크, 신경통, 관절염, 풍봉예방수술법, 비만 관리, 시술법, 음양오행 지압, 지압법
- 정신수강연구원
- 입구정역 543-7306

봉축 현수막 전문 제작

공장 직영
삼보기업

전화 (02)279-2715
팩스 (02)275-3739

탈증공고

대한불교 법화종 종정 법하

주 소 경기도 어주군 침등면 관한 1리 26번지 사찰형 정자사

귀 종단의 중지와 종풍을 수행할 수 없어 탈종함을 이에 공고함.

주지 김 다 현 합장

탁자, 단집, 법상, 문파, 불교조각

주요 품목

- 합천(현사) 디지컬링 법상, 경정
- 희망(현사) 대웅전 수미단 단집 문파
- 사실(현사) 법상 수미단 단집 문파
- 유심(현사) 대웅전 문파
- 희원(현사) 대웅전 문파
- 성원(현사) 대웅전 문파 단집
- 포진(현사) 대웅전 문파 단집
- 관정(현사) 대웅전 수미단 단집 경정
- 서원(현사) 대웅전 문파, 대좌, 대좌 시좌

대진(전승)공예사

핸드폰 011-282-4609
지 역 02-248-4609
공 정 0346-571-9538
호 소 012-210-1401

趙貞玉 합장

조립식 건물(주택)

저희 신화개발은 불자가 경영하는 조립식 건물 전문 시공업체로서 성실과 봉사로, 불자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.

조립식 건물(주택) 경량 칸막이 시공

칼라·아스팔트·싱글

전화 (053) 742-7855
051-717-7792
011-532-8454

(주) 신 화 개 발

寺刹 및 古殿건축 木材에

- 木材放火劑(화재예방용)
- 木材활열방지제(갈리짐 방지)
- 木材방충·방부제
- 木材탈취제(청균제거)

韓國木材防腐工業株式會社

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56-11
상인B/D (율지로 2가)
전화 (02)266-2629
팩스 (02)266-2679

신비의 신라범종 개발

창업 66년의 역사로 범종주조의 기술혁신을 선도해온 저희 성종사가 수년간 계속된 연구 끝에 드디어 새로운 음향과 아름다운 문양의 새종을 개발하였습니다.

범종 제작 및 불상 조성 TAPE(비디오 테이프)를 원하시는 스님·사부대중께서는 전화 문의시 직원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.

각종 범종제작 및 대표작품 실례 대우

충무로 聖聖社
대표 元光植(榮山)합장

(02)733-6141(서울사무소)
(0331)283-2083(공정)

거승 동양화 화실

거승 철학원(운명 조연)

서울시 용산구 청라1가동 140-3 (홍신빌딩 308호)
전화(02)3273-0081

- 진품 비록 맞은 대우나물(모장, 부채류)
- 진품 식법법 및 진품 공개